

성 유대절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토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고 해 성 사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유 아 세 례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관 연 혼 배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2020년 11 ~ 12월 본당 추천 도서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글쓴이: 이영숙 수녀 / 출판사: 더비움)

30여 년간 환자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가는 길, 호스피스 길을 함께 걸어온 이영숙 수녀 (마뎀암재단 사무국장,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체험해 온 사랑 가득한 이야기 책.

정상가: 18,000원 → 할인가: 10,000원

① **청담 영성학교 (10월 29일(목) 20시, 2층 대성전)**

- 성 존 헨리 뉴먼 영성-‘제 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을 앞서 살다.’ (강사: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영국의 성 존 헨리 뉴먼 추기경(1801~1890)
 저명한 신학자 겸 시인이었으며, 처음엔 성공회 사제로 서품되었다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저술을 연구하고 삶을 배우려는 긴 영적 여정을 거쳐 가톨릭으로 회심해 훗날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그가 남긴 정신적, 영적 유산은 현대 교회의 삶과 신학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019년 10월 13일 시성되었다.

- ① **이 엘카나 수녀님 영명축일**
 - 11월 1일(주일)은 모든 성인 대축일이자 저희 본당의 청소년 담당 수녀이신 이 엘카나 수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이 엘카나 수녀님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① **고해성사 안내**
 - 그동안 중단 되었던 고해성사가 다시 재개합니다.
 - 시작일시: 11월 1일(주일)매 미사시간 전, 1층 감사방
 - 고해시간- 평일: 미사 15분 전, 주일: 미사 30분 전
- ① **병자인수축복식: 10월 25일(오늘), 11시 교중미사 후**
- ① **임산부 축복식: 11월 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① **성시간: 11월 5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 ① **성모신심미사: 11월 7일(토), 오전 6시 미사**
- ① **유아세례: 11월 7일(토), 오후 4시 30분, 2층 대성전**
 - 접수마감: 11월 1일(주일)까지 사무실 접수
- ① **‘위령의 날’ 합동 위령 미사 안내**
 - 11월 2일(월)은 ‘위령의 날’로 죽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교회가 전통적으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합동위령 미사 중에 예물봉헌과 분향이 있으며, 미사 후 짧은 연도가 있습니다.
 - 미사봉헌: 11월 2일(월) 오전 6시
- ① **위령성월 사별가족 초청미사**
 - 대상: 2018년 11월 ~2020년 10월까지 본당에 교적을 두신 사별 가족분

일시	시간	진행 및 장소
11월	오후 6시 20분	연 도 (2층 대성전)
17일	오후 7시	미 사 (2층 대성전)
(화)	오후 8시	다 과 (1층 프란치스코 홀)

 - 문의: 연령회장 (010-7186-7222)
- ① **ME 야외행사**
 - 일시: 10월 31일(토), 오전 9시, 성당마당 출발
 - 문의: 양 알베르도 (010-3068-3427)

- ① **청담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 일시: 11월 4일(수) 10시 미사 후, 1층프란치스코홀
 - 대상: 65세 이상, 즐거운 신항생활을 희망하시는 분
 - 문의: 이 말가리다 (010-8572-7238)
- ① **사피엔스 작은 도서관 ‘한마음 한 책 읽기 서평회’**
 - 일시: 11월 5일(목) 오전 11시, 사피엔스 도서관
- ① **해외선교 아카데미 7주 프로그램**
 - 일시: 11월 5일(목) ~12월 17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선교의식 강화와 단기 해외선교사 양성에 관심있는 분
 - 문의: 김 헬레나 (010-8771-0401)
- ① **정부 방침에 따른 성당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
 - 10월 11일 발표 된 정부의 서울 소재 성당, 사찰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본당의 방역수칙 이행 확인을 위한 정부의 현장 점검이 수시로 시행 됨.)

대 상: 서울 소재 종교 시설
적용기간: 2020.10.12.(월)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 마스크 항상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체온측정, 신자간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시
▶ 감염병법에 따라 해당시설 집합금지(제 49조)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 80조) 부과.
▶ 시설 운영자(본당)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용자의 경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방역 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 시설 운영중단.

① **10월 25일(오늘): 시설보수 2차 헌금**

성가번호 입 당: 31 예물준비: 성가정성가, 219 성 체: 168, 169 파 견: 청담동본당가

화 답 송

저 의 힘 이 신 주 님 당 신 을 사 랑 하 나 이 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43)

‘읽는다는 것’에 대하여

흔히 우리는 읽는다는 것의 대상을 책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다는 것은 책뿐만 아니라 도로 표지판이나 가게 간판, 스마트폰에 들어온 문자 메시지, 날씨나 사람의 표정,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읽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읽음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텍스트’(text)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모든 피조물, 즉 텍스트가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의미나 가치관을 찾아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표시된 명백한 의미를 읽어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잠재된 암시적 의미도 곧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저자가 심어놓은 의미와 가치에 매료되고 그것에 자발적 순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의미와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주어진 의미나 가치가 절대화되는 경우를 ‘닫힌 텍스트’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생각이나 해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닫힌 텍스트’를 강요한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자유의 영역이고, 그래서 매우 정치적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열린 텍스트’라 하겠습니다. 독자는 자신의 해석틀(관점)이나 해석 공동체의 준거점에 비추어 저자가 전해주는 의미와 가치관을 상대화시켜 다른 의미와 가치관을 만들거나 적당히 절충할 수 있습니다. 책, 영화, 그림, 음악, 건축 등 그것들에 본래 내포한 암시적인 의미와는 다른 제 3의 의미 전환을 통해 시대의 새로운 사조가 형성되고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사회는 고정된 의미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향하려 하지만 반면에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닫힌/열린 텍스트’라는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즉 텍스트에는 영원불멸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인간 각자에게 그 텍스트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도 변함없는 ‘공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말씀은 당대 문화, 시대에 따라 변하는 문화(특히 언어)를 통해 인간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통시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중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경읽기와 그에 따른 해석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근본주의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와 같이 입맛에 따른 주관주의라는 양극단의 오류가 작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까? 닫힌 텍스트인 성경은 하느님 말씀으로써 거룩하신 그분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각자 자신의 상황(컨텍스트)에 따라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고유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방식은 활짝 열려 있고, 저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중성을 잘 이해할 때 올바른 성경읽기와 해석을 통해 지혜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2020. 10. 25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0월 14일 ~ 10월 20일)

봉헌 예물		교무금 납부 현황	
연중 제 29주일 봉헌금	8,100,350원	총 세대수	2,539세대
전교주일 2차	4,042,450원	총 납부세대	1,213세대
교무금	22,410,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7세대
성소후원금 (11건)	285,000원	총 납부율 (%)	48.1%
감사 헌금			
안 요안나	300,000원	김 가브리엘라	50,000원
김 스킨라스티카	300,000원	이 요한	500,000원
		합계: 1,150,000원	